

※단어의 품사와 관련된 오개념 쏙쏙

Topic1. 형용사, 관형사 구분하는 법

Topic2. 관형어와 관형사, 부사어와 부사 구분하는 법 (다음 칼럼 예고)

먼저, 첫번째 토픽은 형용사와 관형사입니다. 둘 다 단어의 분류인 품사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품사에 대해 공부할 때,

형용사는 용언에 속하고, 즉 문장에서 서술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관형사는 수식언에 속하고, 즉 문장에서 다른 성분(관형사는 주로 체언)을 꾸며주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문제를 풀 때, 특정 단어가 형용사인지 관형사인지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느껴 오답을 고르는 경우가 많죠?

개념에 기초하면, 정말 개념에 기초하면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관형사만 체언을 꾸며준다는 것을 우리 게이들도 잘 아는 개념일텐데, 도대체 왜 우리는 관형사와 형용사는 헷갈려하는 걸까요?

이것은 사실 관형사와 형용사를 구분할 때, *관형사가 체언을 꾸며준다는 개념에만 초점을 뒀서*

》 형용사의 기본 기능이 서술! 《이라는 것을 놓쳤기 때문일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예를 들어서, 아래 세 문장을 뜯어봅시다.

1. 나는 어제 잘생긴 오르비언의 사진을 봤다.
2. 나는 어제 새 수트를 샀다.
3. 나는 재수를 하며 새로운 경험을 하는 중이다.

먼저, 1번 문장! 대부분의 응애 언매 학생들은

잘생긴? > 오르비언을 꾸며주네!

> 그럼 관형사네?

라는 메카니즘으로 품사를 구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땡땡땡!

어디에서 틀렸을까요? 사실 잘생긴은 오르비언과 대응되는 것은 맞습니다. 오르비언이 잘생긴 거죠.

어?

?

?

오르비언이 잘생기다.

잘생기다는 오르비언을 서술해주는 거죠?

그럼 1번 문장은 '오르비언이 잘생기다.'라는 절을 안은 거네요? 제가 추후에 관형절을 찾는 방법

에 대한 칼럼도 업로드하겠지만,

밑줄이 그어진 단어가 관형사인지, 형용사인지 구분하는 문제에서

그 단어를 기준으로 숨어진 관형절을 확인한다면,

이 문장에서 형용사는 주어가 생략된 관형절이기 때문에 관형사처럼 보인 것이지,

사실은 주어를 서술해주는 관계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2번 문장을 볼까요? 밑줄이 그어진 '새'를 기준으로 관형절이 보이나요? 아니죠?

수특이 새다. 라고 바꾸면 이상하잖아요? 관형사 계죠?

그럼 3번 문장에서 '새로운'은 관형사일까요? 형

용사일까요?

.
. .

단순히 보면 경험을 꾸며주는 관형사 같겠지만, 사실 '경험이 새롭다'라는 관형절을 찾을 수 있죠? 3번 문장의 경우, 나는 재수를 하다. 나는 경험을 하는 중이다. 그리고, 경험이 새롭다. 이 세 문장으로 이루어진 겹문장이라는 거죠.

새로운은 즉, 경험을 서술해주므로, 관형절에서 서술어로 쓰이고 있고, 형용사이다.

관형사는 서술어로 쓰이는 경우가 없죠?

지갑이 험다. 가방이 새다. 이런 문장 없죠?

자, 마무리 정리! 우리는 관형사와 형용사의 구분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네요.

1. 밑줄 그어진 단어 앞뒤로 관형절이 숨어있는지 보자.

2. 주어가 생략된 관형절이라면, 밑줄 친 단어는 절의 서술어이다. 관형사와 형용사 중 서술의 기능을 하는 단어는 형용사이므로, 이 단어는 형용사일 것이다.